

# 10월 국립중앙과학관 별의별 과학특강 AI를 넘어 양자컴퓨터로!

카이스트 이순철 교수가 전하는 ‘양자컴퓨터가 가져올 우리의 미래’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 이제는 AI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의학과 금융을 바꾸어 놓는 시대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AI의 한계를 뛰어넘는 진짜 게임 체인저는 양자컴퓨터가 될 것이다.”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권석민)은 오는 10월 18일(토) 오후 2시,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열리는 ‘별의별 과학특강’의 10월 강연자로 KAIST 이순철 교수를 초청해 「양자컴퓨터가 가져올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의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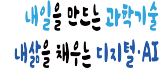
이순철 교수는 국내 최초로 병렬 처리 양자컴퓨터 개발에 성공한 연구자이자, 양자정보과학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이번 강연에서는 기존 컴퓨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양자컴퓨터의 원리를 소개하고, 의학·에너지·신소재·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컴퓨터가 가져올 혁신적인 변화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낼 예정이다.

양자컴퓨터는 21세기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 분야로, 미래산업과 우리의 삶 전반을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강연을 통해 학생, 학부모, 일반 시민 모두가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안목을 넓히는 알찬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별의별 과학특강』에 참여를 원할 경우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 해당 강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나, 예약을 하지 못한 관람객도 노쇼(No-Show) 등 잔여석에 한하여 당일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www.scien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0월 별의별 과학특강 포스터

담당 부서	국립중앙과학관 기초과학과	책임자	과 장	오석균 (042-601-8030)
		담당자	주무관	이수영 (042-601-7861)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만나는 과학특강 [10월]

# [카이스트 이순철 교수]의 별의별 과학특강!

## 양자컴퓨터가 가져올 우리의 미래

국내 최초 병렬 처리 양자컴퓨터 개발,  
양자컴 연구의 국내 최고 권위자 이순철 교수님의 별의별 양자 특강!!  
양자 시대, 우리가 알아야 할 양자컴퓨터가 가져올 우리의 미래,  
별의별 과학 특강에서 알려드립니다.



카이스트 교수 이순철

2025.10.18.(토)  
14:00-15:30

-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
- 사전 예약자 선착순 입장



강연 예약



| 별의별 과학특강은 누구나 무료 참석 가능합니다 (단, 일부 강연 제외)  
| 상기 일정은 기관 및 강연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